

## 혁명전쟁의 이론적 고찰과 현재적 함의

김태현\*

### 요 약

혁명전쟁(革命戰爭, revolutionary war)은 마오쩌둥이 중국내전에서 적용하고 체계화시킨 전략개념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유행처럼 번져나간 민족 해방전쟁에서 수많은 변형적 적용을 거치면서 발전되었다. 혁명전쟁은 현대 전쟁전략에서도 “4세대 전쟁(4GW, The Fourth Generation Warfare)”이라는 개념으로 그 이론적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또한 정치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형태는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공산혁명 전략의 기본 형식이었으며 한국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공세적 전략체계라는 점에서 한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현안 문제로 볼 수 있다. 더욱이 2012년은 남한과 북한이 권력의 재편이라는 정치적 불안정 요소가 더욱 가증되는 시기여서 혁명전쟁에 대한 논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분석함에 있어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소홀히 다루어 왔던 혁명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혁명전쟁의 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과 성공요건을 분석하여 북한 전략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키는 기반을 제 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제어:** 혁명전쟁, 중심, 정치전, 군사전, 4세대 전쟁, 정서와 마음, 존재론적 전쟁

229

혁명전쟁의 이론적 고찰과 현재적 함의

\* 함동군사대학교, 교육생(군사학 박사).

## I. 서론

혁명전쟁(革命戰爭, revolutionary war)은 마오쩌둥이 중국내전에서 적용하고 체계화시킨 전략개념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유행처럼 번져나간 민족 해방전쟁에서 수많은 변형적 적용을 거치면서 발전되었다. 혁명전쟁이란 ‘폭력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형태의 전쟁’으로, 기존의 정치조직과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구조로 대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Thompson 1970, 4). 따라서 혁명전쟁은 상대방이 완전히 타도될 때 까지 군사력을 극한으로 사용(maximum use of force)하는 양자 간 결투, 즉 절대전쟁(absolute war)의 특성을 가진다(Clausewitz 1984, 75-77). 이러한 전쟁의 절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명전쟁은 궁극적으로 대중의 ‘마음(minds)’을 흡수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 정치전(political war)의 양상을 띠게 된다. 따라서 혁명전쟁의 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은 적의 무장해제라는 유형적 중심에 있다가 보다 대중의 지지 획득이라는 무형적 중심에 있으며, 이 결과 군사력에 의존한 순수한 무력투쟁은 혁명전쟁 전체의 일부 국면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Heuser 2007, 150; Clausewitz 1984, 89).<sup>1)</sup>

이러한 혁명전쟁은 현대 전쟁전략에서도 “4세대 전쟁(4GW, The Fourth Generation Warfare)”이라는 개념으로 본질적 속성에서 그 유용성을 잃지 않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햄스(Hammes 2004)는 순수한 군사전이 아닌 정치전을 수반하는 ‘4세대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혁명전쟁과 유사하게 정치전에 주목하면서, 비정규전 형식의 무장투쟁이 적의 물리적인 파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대중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모전의 형식을 띤다고 파

1) “정부(government)-군대(army)-국민(people)”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전쟁의 본질에서 혁명전쟁은 특히 “국민”을 전쟁 수행의 주요 수단이자 목적으로 간주한다.

악하였다(Lind 1989; Echevarria 2005). 그리고 이 때문에 미국은 막강한 첨단 무기로 전략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반군 집단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장차 전략은 마오쩌둥의 언명처럼 ‘정치적 의지’가 경제적, 군사적 힘을 능가한다는 명제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전쟁 형태의 전쟁수행 방식은 미국이 당면한 위협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4세대 전쟁이라는 개념을 접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단지 미국이 당면한 세계전략상의 문제점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형태는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공산혁명 전략의 기본 형식이었으며 한국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공세적 전략체계라는 점에서 한국에게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전략 문제로 볼 수 있다. 더욱이 2012년은 한반도의 정치적 불안정성 가중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혁명전쟁에 대한 논의는 향후 한반도 안보문제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권력안정화를 달성해야 하는 한반도 권력재편기이기 때문에 북한은 대남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단순히 군사적 수준에서 도발을 감행하기보다 정치전과의 배합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혁명전쟁 전략은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전략 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 내부에서의 진지한 전쟁론적 연구와 평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두 가지 상반된 이유가 작용했다. 한편에서는 혁명전쟁을 중국, 베트남, 쿠바 혁명과 같이 냉전시대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고 현대 전쟁수행에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진부한 개념인 것으로 인식하여 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전쟁과 전략의 성격을 규정할 때 불가피하게 북한이 사용하는 ‘혁명전쟁’,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혁명’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해 남한의 체제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훼손하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Galula 2006).<sup>2)</sup> 이 두 가지 차원의 편견 때문에 그간 학계에서는 혁명전쟁의

이론적 체계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쟁 연구에 대한 노력의 부족은 곧 한국이 정치전과 군사도발의 배합이라는 북한 전략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하고 대비하는데 소홀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후과는 북한이 2010년 자행했던 천안함 폭침도발에서 한국이 안일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노림수였던 남남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혁명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통적인 국제전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혁명전쟁이 추구하는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북한 전략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혁명전쟁의 본질, 정치전과 중심, 혁명전쟁의 단계, 그리고 혁명전쟁의 성공 요건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본 논문은 혁명전쟁 이론을 북한의 대남 전략과 연계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기 보다는 혁명전쟁의 본질 그 자체를 규명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차후 연구자들의 몫에 맡기기로 하였다.

## II. 혁명전쟁의 본질

혁명전쟁(revolutionary war)은 아주 광범위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적 정의는 아직 없다(Shy 1986, 816). 혁명전쟁에 대

2) 논문에서 다루는 “혁명전쟁(revolutionary war)”은 용어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마오쩌둥의 주장하는 혁명전쟁의 정의에 동의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상대방은 ‘반혁명(counter-revolutionary)’으로 전략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갈돌라는 혁명 집단을 전복자(insurgent), 그리고 상대방을 대전복자(counter-insurgent)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해 다루는 많은 연구들은 혁명전쟁을 소규모 전쟁(small wars), 인민전쟁(people's war), 전복전(insurgency), 반란전(insurrection), 유격전(guerrilla warfare), 내전(internal war), 비재래식 전쟁(unconventional war), 비정규전(irregular war), 테러리즘(terrorism),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 등의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Gray 1999, 286). 이 가운데 혁명전쟁은 “치고 달아나는(hit and run)” 전술과 같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격전, 빨치산 전쟁, 비정규 전, 비재래식 전쟁과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헌팅턴(Huntington 1962)은 전쟁(戰爭, war)과 전(戰, warfare)의 개념을 분리하여 혁명전쟁과 유격전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다. 헌팅턴은 전쟁을 “두 개의 조직적인 정치 집단 간의 폭력적 상호작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전쟁의 형태를 총력전(total war), 전면전(general war), 제한전쟁(limited war), 그리고 혁명전(revolutionary war)의 4개 형태로 구분하였고 이 중에서 혁명전쟁은 “비정부 집단과 정부 간의 투쟁”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반해 ‘전(戰, warfare)’이란 특정 군사력, 전술, 무기를 수반하는 군사적 행위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였으며, 유격전이란 바로 ‘전(戰)’의 한 형태이지 전쟁(戰爭, war)의 한 형태라고 보지 않았다. 유격전이란 “전략적으로 약한 자가 선택한 형태, 시간, 장소에서 전술적인 공세를 취하는 전투의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혁명전쟁을 수행하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혁명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인민봉기, 파업, 태업, 그리고 테러리즘에서 정규군에 의한 결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유격전은 이러한 혁명전쟁의 하부 수단의 한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혁명전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혁명전쟁은 혁명 활동의 한 형태로 하나의 새로운 이념체제 또는 정치체제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비정규 군사 전술을 정치, 심리적 작전과 결합한 장기적 투쟁을 포함하는 다양한 혁명적 활동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Baylis 1975). 프랑스의 시메

네스는 혁명전쟁을 “급진적으로 국민을 지배하고 기존의 정권에 대항하는 행동을 할 동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지원해 주는 소수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무장투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Heilbrunn 1967, 159). 이와 유사하게 샤이(Shy 1986, 817)는 혁명전쟁을 “대중 또는 광범위한 정치적 운동에 기반하고, 장기간의 무장투쟁을 수반하며, 잘 선전된 정치사회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톰슨(Thompson 1970, 4)도 “혁명전쟁이란 무자비한 소규모 소수집단이 폭력을 통해 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여, 폭력 및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전쟁의 한 형태”로 정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혁명전쟁은 비정규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정치 조직과 사회구조를 파괴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한다(Collins 1973).

전쟁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혁명전쟁은 주로 내전(內戰)에 관한 것으로 전복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전복 활동을 제압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부와의 충돌이 바로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갈룰라(Galula 2006; O'Neil 1980)는 혁명전쟁의 이러한 성격과 연장선상에서 ‘전복전(insurgency)’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전복전이란 비통치집단이 정치수단과 폭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정당성(legitimacy)’의 기반을 파괴, 대체,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로 볼 수 있다(O'Neil 2005, 15). 콜린스(Collins 2002, 168)도 혁명전쟁을 기존 권력을 추방하기 위한 전복의 한 형태로 설명하면서, 혁명전쟁의 목표는 대다수의 대중에게 전복집단의 정치개혁 구상이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무시한 채 대중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의 지배 체제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납득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혁명전쟁은 외부 세력과 국내 지지자들로부터 정부를 차단하여 고립시키고, 정부의 안보 역량을 과도하게 신장시켜 고갈시키며 사회구조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는 권력을 장악하는데 목표가 있다(Shy 1986, 815). 역사적으로 혁명전쟁은 공산주의자들에 게서 가장 많은 현실적인 적용을 거쳐 왔는데 레닌이 주장했던 제국주의전

쟁론과 스탈린의 ‘정의의 전쟁(just war)’은 모두 바로 이러한 ‘정당성’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공략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Osgood 1957, 49).

이러한 의미에서 혁명전쟁이란 단순히 정치의 수단이라기보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위한 매개체 또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혁명전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 내에서 당의 정책을 추종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재래식 전쟁과 달리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전복세력이 ‘무력’이라는 수단에 의지하기 벌써 이전 단계부터 개시된다(Galula 2006, 4). 뮈클러(Muenkler 2003, 98-100)는 이러한 전쟁의 매개체적 성격을 ‘존재론적 전쟁(existential war)’이라고 정의했다.<sup>3)</sup> 이때 전쟁은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집단의 형성과 지배체제 전환의 매개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지도자는 전쟁이라는 강압적 상황을 조성하여 “대중”을 정신적으로 정화시키려 하며(Kondylis 1988, 28), 전쟁 상황에 직면한 대중은 일상을 지배하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스스로 인지해가는 일종의 ‘사회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겪게 된다(Ritter 1968, 60). 클라우제비츠도 “전쟁, 위험, 대재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적인 존재’를 극복하게 해준다”면서 전쟁의 존재론적 특성을 언급하였다(Rothfels 1922, 75).

혁명전쟁은 정당한 정치집단이 규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라기보다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정치적 집단이 형성되며 이러한 정치적 집단

3) 도구론적 전쟁과 존재론적 전쟁관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전쟁을 정치 하에 개념화하는 도구론적 전쟁관은 전쟁수행 주체가 전쟁을 통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도구론적 전쟁관에서는 한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폭력적 수단의 사용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국가는 전쟁행위가 종결된 후에도 개전 시와 동일한 형태의 정체(政體)로 존속한다. 다시 말해, 전쟁을 통해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지도 않으며 전쟁 중에 국가가 변환하지도 않는다. 기껏해야 국가는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그 영토를 확대할 뿐이다. 그러나 존재론적 전쟁관은 전쟁주체의 변환과정과 형성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전쟁과 폭력을 통해 자극되고 가속화된다. 이때 존재론적 전쟁관에서는 전쟁수행의 일정국면까지는 “전쟁과 폭력” 그 자체가 한시적으로는 스스로 전쟁수행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의 탄생이라는 기대 속에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과정이다. 민족 해방운동이 전형적인 사례이며, 민족 해방전쟁의 전략은 바로 전투과정에서 비로소 국가를 형성시키고 이 국가의 형성을 위해 전쟁이 수행된다. 혁명전쟁은 한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폭력적인 수단으로 관철하고자 하며 재래식 전쟁과는 달리 전쟁 행위가 종결된 후에는 전쟁 주체가 스스로 형성되고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리하자면 혁명전쟁은 정규 부대에 의한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현존하는 정부를 전복시키고 대체시킨 후 새로운 정치체제의 탄생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형태로 볼 수 있다(Sarkesian 1975, 7). 따라서 혁명전쟁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혁명적 목표(revolutionary objective)’의 존재이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수단을 선택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Shy 1986, 817). 또한 그러한 혁명적 목표는 ‘기존사회 제도의 파괴’와 ‘새로운 국가구조의 대체’라는 절대성을 갖기 때문에 상대방을 완전히 타도하기 위해 폭력의 운용이 극단으로 치닫는(maximum use of force) 절대전쟁(absolute war)의 형태를 띠게 된다(Clauswitz 1984, 75-77).<sup>4)</sup> 전복전과 유격전과 같은 유사한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말해 이러한 개념들은 분쟁 또는 투쟁의 한 형태에 해당될 뿐 혁명전쟁의 정치적 속성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혁명전쟁이라는 개념만이 강한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혁명전쟁은 “대중 또는 광범위한 정치적 운동에 기반하고, 장기간의 무장 분쟁을 수반하며, 잘 선전된 정치사회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샤이(Shy 1986, 817)의 견해가 혁명전쟁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

4) 클라우제비츠는 폭력이 극단적으로 운용되고 발휘되는 전쟁을 절대전쟁(absolute war) 또는 관념전쟁(ideal war)이라고 하였고, 마찰로 인하여 폭력이 제어되고 절제되는 형태의 전쟁을 현실전쟁(real war) 또는 제한전쟁(limited war)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가능한 해석으로 혁명전쟁은 라이더(Lider 1983)의 전쟁유형의 분류에 따르면 적대 교전상대의 관점에서는 국가 간 전쟁, 내전, 그리고 혼합형을 모두 아우르는 범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슈 중심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전쟁행위의 분류에 의하면 “비정규전”과 “재래전”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형식의 전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 III. 혁명전쟁의 전략과 전개과정

#### 1. 혁명전쟁의 속성 : 정치전과 중심

혁명전쟁은 단순히 정의하기보다 국제전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Thomson 1970, 4). 혁명전쟁은 군사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전과 달리 대중의 광범위한 정치적 동원을 수반하는 정치전의 형태를 띠게 된다(모택동 1938). 혁명전쟁은 정치적 강점이 전쟁수행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견고한 정치적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정부군의 물리력에 대한 저항력을 형성해 나가는데 집중한다. 이처럼 혁명전쟁이 국제전과 달리 정치전의 모습을 더욱 강하게 띠는 것은 전쟁목적의 절대성과 전복세력과 정부군 간에 힘의 ‘비대칭성(asymmetr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혁명전쟁은 국제전과 달리 기존 사회체제를 파괴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영구적 평화’를 수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정권장악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혁명전쟁에서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타협하였더라도 전쟁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대중을 완전히 흡수하지 않으면 적은 이에 불복하고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전쟁은 상대방에 대한 완벽한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절대전쟁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전쟁수행 전략과 전략수단의 선택에 있어 국제전과 달리 정치전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표 1〉 혁명전쟁과 국제전의 비교<sup>5)</sup>

| 구 분        | 혁명전쟁                    | 국제전                       |
|------------|-------------------------|---------------------------|
| 정치적 목적     | 타도(적의 무조건 항복)           | 협상 또는 타협(평화조약)            |
| 최종상태       | 영구적 평화(perpetual peace) | 조건부 평화(conditional peace) |
| 전쟁의 목표(형태) | 절대적 목표(절대전쟁)            | 제한적 목표(제한전쟁)              |

둘째, 힘의 비대칭성은 혁명전쟁 전략의 핵심문제이다. 혁명전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군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혁명전쟁은 전 단계에 걸쳐 외부세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복집단과 정부군 간에 힘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혁명전쟁이 발생하는 조건은 외부의 강력한 후원국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회발전의 단계가 반봉건적 수준에 해당되는 정치사회적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이 약한 전복집단이 전쟁의 목표를 정부군의 군사력 격멸과 영토점령이라는 재래적인 방법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전복세력은 오히려 물리적인 열세를 상쇄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영역을 식별하여 비대칭적인 방법으로 정부군과 투쟁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Arreguin-Toft 2001, 122). 이때 전복군과 정부군의 힘의 비대칭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대중’이다(모택동 1938). 혁명 집단이 만약 정부로부터 대중을 분리시켜 정부를 고립시키는데 성공하고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한다면 최종적인 국면에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이처럼 혁명전쟁에서 추구하는 승리와 ‘중심(center of gravity)’의 개념은 국제전과는 다르다(Clausewitz 1984, 596-619).<sup>6)</sup> 국제전에서 전쟁승리 추구의 주안점은 결정적 전투에서 적을 타도하고 적의 방어 능력을 해제한 후, 적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데에 있다(Bond 1996; Heuser 2007, 144;

5) 박창희, 『현대중국전략의 기원』(서울: 플래닛미디어, 2011), pp. 19-20.

6)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란 “대부분의 무게가 가장 밀도 높게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서 대부분의 전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점으로 정의되며 승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힘의 중심을 가장 먼저 식별하여 공격해야 한다.

Clausewitz 1984). 즉 국제전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의 ‘군대’, ‘수도’, ‘후견국’과 같은 유형적 중심(physical center of gravity)을 공격하여 적을 무장해제함으로서, 적의 의지를 분쇄하여 ‘타협’과 ‘협상’을 강요하는 제한전쟁의 속성을 띤다(Clausewitz 1984, 619; Heuser 2007, 146-150).

혁명전쟁은 이와 달리 타협이 불가능한 기존세력의 완전한 타도를 전쟁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과 적당히 타협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대중의 ‘마음’을 흡수하여 영구적인 평화를 수립해야 한다. ‘전쟁의 삼위일체(trinity of war)’를 보자면 혁명전쟁에서는 이성의 힘보다 감성의 힘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Clausewitz 1984, 89). 따라서 혁명전쟁의 전략적 중심은 국제전과 달리 ‘적의 군대’, ‘수도’, ‘후견국’과 같은 유형적 중심이 아니라 ‘대중여론’과 같은 불가시적인 ‘무형적 중심(metaphysical center of gravity)’이 되어야 한다(Clausewitz 1984, 596). 혁명전쟁은 단 한 번의 결정적 전투를 통해 적의 유형적 중심을 분쇄하기 보다는 프랑스 혁명과 프로이센의 해방전쟁에서처럼 ‘이상의 힘(force of ideals)’을 통해 대중의 지지와 자발적 참여를 획득하는데 중점을 둔다(Tulpanow 1985, 15). 다시 말해 혁명전쟁은 순수한 군사적 영역의 활동뿐만 아니라 인민무장을 위한 정치적 동원과 같은 대중의 반응과 대중의 영향력을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한다(Clausewitz 1984, 80-81).

결국 혁명전쟁에서 전쟁의 목표는 ‘대중’ 그 자체이며, 대중의 ‘정서와 마음(hearts and minds)’을 획득하기 위해 구상되는 모든 무력투쟁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속성을 띤 수밖에 없다. 혁명전쟁에서는 전복자와 정부군이 모두 동일한 목표, 즉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사회’가 곧 혁명 활동의 모체이며 사회에 대한 완전한 장악이 혁명전쟁의 목표가 된다. 이처럼 혁명전쟁은 서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전략의 망각된 차원(forgotten dimension of strategy)’으로 인식 되어온 전략의 사회적인 측면, 즉 국민의 참여와 자발적인 국민의 태도에 의존하는 전쟁의 유형으



로 볼 수 있다(Howard 1980, 4). 이 때문에 “정부-군대-국민”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전쟁의 본질에서 혁명전쟁이 재래식 전쟁과 다른 원인은 바로 “국민의 열정” 때문이며, 이러한 사회적인 요소가 바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전쟁과도 차별화되는 혁명전쟁의 근본 속성이다.

혁명전쟁의 정치전적 속성은 무력투쟁의 비재래적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Herberg-Rothe 2007, 4; Heuser 2002; Beyerchen 2007). 전복 집단이 정규군을 보유하게 되자마자 전쟁의 형태가 쌍방이 영토의 일정 부분을 점유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전형적인 국제전의 형태, 즉 정치적 속성을 벗어난 순수한 군사전에 편향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혁명전쟁의 지도부가 약간의 전략적 식견이라도 있다면 혁명전쟁은 전통적인 재래전적 형태에 국한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혁명 세력이 대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고 동원하는데 성공할 경우 이것은 정규군의 차후 작전수행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고 적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자산’ 인테 군이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Galula 2006, 9). 더군다나 외부 세력이 개입되어 있어 피아간 힘의 역량계산이 불확실한 경우 정치적 역량은 전쟁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혁명전쟁은 군사전과 정치전의 끊임없는 배합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모택동 1938, 249-255). 혁명전쟁은 육, 해, 공군 작전등 순수한 군사적 고려에 주안을 두는 재래식 전쟁에 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4가지 요소에 주안을 둔 ‘4차원 전쟁(fourth dimension of war)’의 특성을 지닌다(Baylis 1975). 더욱이 외세가 개입된 전쟁에서 형성된 피아간의 힘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정권장악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혁명전쟁은 적의 물리적인 전투력의 소멸과 영토점령이라는 순수한 군사적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또한 ‘대중’이라는 중심으로부터 이탈해서도 안 된다. 혁명전쟁의 정치전의 속성은 혁명전쟁 수행 과정에서 혁명세력의 힘의 열세와 추구하는 목표의 절대성에서 파생되는 불가피한 산물이므로 이러한 특성과 반대로 전쟁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복 집단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없다(Galula 2006, 10).

## 2. 혁명전쟁의 전개과정

혁명전쟁은 혁명 초기 단계에서 전복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전의 특성을 가진다. 소규모의 전복 집단이 혁명운동을 조직하고, 군사력을 육성하고, 정부군과 동등한 수준의 군사적 균형을 달성하며, 최종적으로 정부군을 제압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혁명전쟁의 목표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여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혁명전쟁은 일반적으로 장기화된 투쟁을 통해 정권 장악이라는 최종적 목표를 달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Collins 1973, 6).

혁명전쟁은 크게 정치적 투쟁단계와 군사적 투쟁단계로 구분되며 단계의 세분화에 따라 3단계 혁명전쟁, 또는 5단계 혁명전쟁으로 구분된다. 마오쩌둥은 광범위한 군사 이론을 포괄적인 사회철학에 종속된 체계적인 작전교리로 통합한 이론가로서(Sarkesian 1975, 8), 장기전 수행에 필요한 자원으로서는 대중의 지지, 광범위한 조직적 노력, 그리고 전략 환경이라는 변수에 큰 비중을 두고 혁명전쟁의 전략을 1) 정치적 조직화, 2) 유격전, 3) 운동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모택동 1938, 199-208).<sup>7)</sup> 마오쩌둥은 혁명세력이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중을 동원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달성한 뒤에야 비로소 혁명전쟁은 최초 단계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Gat 2001).<sup>8)</sup> 따라서 최초단계가 개시되기 전에 혁명조직이 사회속으로 침투되어 있어야 하며 혁명전쟁의 1단계를 준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단계에 걸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치적

7) 모택동은 항일전쟁을 지구전으로 규정하면서 3단계 혁명론을 주창하였다. 모택동은 전략적 방어기(1단계)-전략적대치기(2단계)-전략적 반격기(3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서 주목할 점은 각 단계에서 이행되는 전쟁활동의 중점이 각각 정치적 조직-유격전-운동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8) 마오쩌둥은 클라우제비츠의 '정치적 우위(primacy of policy)'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준비를 거친 다음에야 2단계에서 유격전을 개시하고 3단계에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3단계 전략을 톰슨(Thompson 1970)은 방어기, 유격전기, 전면적 공세기로 설명하였으며, 콜린스(Collins 2002, 172)는 준비(preparation), 확장(expansion), 정점(culmination)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5단계 혁명전쟁은 3단계에서 제시된 정치적 조직화 단계와 유격전 단계를 보다 세분화한 혁명 전략이다. 5단계 혁명전쟁 전략은 베트남 전쟁에서 호치민이 적용한 전략으로 폭력단계(violent phase)를 진입하기 전에 주민의 지지를 생취하는 ‘비폭력 단계(non-violent phase)’를 더욱 중요시한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 조직화 단계를 세분화한 단계별 전략으로 1단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조장하여 확산시킨 후 2단계에서는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반정부 정당을 조직하여, 테러, 파업, 폭동을 일으킨다. 3단계에서는 유격전을 개시하고 4단계에서는 해방구를 창설한 후 ‘혁명정부’를 구성하고, 정규군을 구축하여 미해방구 지역인 정부 통치지역까지 세력범위를 확장한다. 5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군사적, 심리적 공세로 전환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단계이다(Paret 1959, 60). 이로써 도시를 우선 공략대상으로 삼았던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농촌을 우선 공격대상으로 삼았던 마오쩌둥과 달리 호치민은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혁명전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혁명전쟁의 전개단계는 전복집단이 직면한 전략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3단계 혁명전략, 즉 1) 정치적 조직화(political organization), 2) 유격전(guerrilla operation), 3) 결정적 전투로 적응을 패퇴시키기 위한 정규전으로 전환(transition to regular operation)의 변형적 적용을 거쳐 왔다(Paschall 1996, 192-194; Gray 1999, 293).

첫째, 1단계인 정치적 조직화 단계에서는 “국가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기존 체제와 사회구조의 완전한 변혁”을 혁명전쟁의 목표로 설정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선전집단을 건설하고 전위정당을 조직하는

혁명의 준비(preparation)단계이다. 동시에 정부의 제도권에 침투하여 파업, 시위 및 폭동을 조장하고 태업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인 민생 지원 사업, 선택적·대중적 호소를 통해 정부로부터 국민을 분리시켜 정부를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강화 한다. 1단계에서는 지하활동을 통해 2단계로 확장하기 위한 근거지 구축에 매진하는 단계이므로 전복자들은 당 간부를 모집하여 ‘혁명조직’을 건설하고 사회적 불만요소를 식별하여 대중을 선동하여 정부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 내 ‘이중권력(dual power)’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전복자들은 태업, 불법 시장 형성, 유언비어, 데모, 파업, 폭동 등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여 정부의 과잉 진압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유도하고 혁명세력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한다.

주민의 민심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 조건하에서는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주민의 협조를 강압하기도 한다. 위협과 테러는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를 양극화시키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더 이상은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상황과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주민들이 혁명 세력에게 순응하고 동조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을 주지시키는데 이용되기도 한다(Baylis 1975). 또한 “대중의 적”으로 간주되는 ‘사회의 공적(公敵)’에 대한 테러를 통해 주민의 불만심리를 해소하여 대중의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기존 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주민을 정부로부터 분리시킬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1단계는 혁명역량의 조직화, 강화, 보존에 역점을 두고 정치심리적인 기반 구축에 매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내 계급구조의 모순을 부각시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혁명조직을 형성시키는데 중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혁명집단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사회적 무질서의 상황에서의 동기(cause)를 이용하여, 파업, 폭동, 태업, 유언비어, 선동을 통해 대중의 불만을 확대 생산하고 사회불안을 조

장하여 혁명 여건을 유리하게 조성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둘째, 2단계는 확장(expansion)기로서 유격전을 전개한다. 혁명세력의 전위 조직인 당 건설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유격전을 개시하고, 당 세력을 보다 확장하고, 정규군을 조직하며, 정부군의 대응을 무력화하는 단계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유격전은 대중의 지지를 견고히 하는 것과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등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다. 만약 유격대가 정부 진압활동으로 인해 저항에 직면할 경우 혁명은 1단계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유격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투쟁을 통해 대중을 정부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우선적인 목표를 둔다. 1단계 과정에서 수립된 당 조직은 유격대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시작하게 되며 해방구에서 혁명세력의 조직을 확대한다.

유격전의 핵심과업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무력투쟁을 정치투쟁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데에 있다(Pustay 1965, 24). 유격대는 군사적 결전을 통한 군사적 승리보다는 치고 빠지기(hit and run), 숨고 탐색하기(hide and seek), 매복과 같은 전술로 정부군의 전투의지를 분쇄해야 한다(Bell 1971, 6-7). 유격대는 결전을 추구하여 적의 전투력 격멸과 영토 확보라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소모전 형식의 지구전을 수행함으로써 적을 지치게 만들고 주민을 동원하는 정치전을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한다(U. S. Department of Defense 2007, 6). 주민에 대한 정치적 침투성을 상실한 유격전은 전략적인 의미를 잃게 되고 단순한 군사투쟁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유격대는 군사력의 투쟁 능력뿐만 아니라 대중교육의 대표자로서 이념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확장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대중의 지지 확보라는 고도의 정치전의 수행관점에서 유격전도 무력투쟁의 범주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전투수행 방법은 정규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Mao 1961, 73; Paret 1962, 28-29). 유격대는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느낌을 주고 그들과 마찬가지로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인식하게끔 하여 지지자들을 확보해야 한다(Heilbrunn 1967, 145).

셋째, 3단계인 정규전으로의 전환은 혁명 집단이 정부군과 동등한 역량 배비상의 지점인 혁명의 정점(culmination)에 도달할 시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혁명운동을 공세로 전환하여 정부를 붕괴하고 승리가 달성될 때까지 공개적인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마오쩌둥 주의자들은 내전을 혁명전쟁의 마지막 단계로 간주하고 유격전과 기동전의 배합으로 정권의 교체를 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정규전 군대가 주요수단으로 등장하며 유격대는 정규전과의 전략적 배합을 통해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혁명전쟁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강조하며 점진적으로 폭력의 강도를 높여 정규전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정치기반 혁명전쟁(장기적 대중전쟁, protracted popular war)’의 성격을 띤다(O’ Neil 2005, 49). 그렇다고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3단계 모두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어느 특정단계에서 반혁명세력의 전쟁 의지를 분쇄시키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제리 민족해방전쟁은 점진적인 군사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승리했던 단적인 사례로서 알제리는 프랑스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면서 체계적인 조직 건설과 심리전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중국혁명과 달리 알제리는 프랑스의 강력한 군사력에 직면해서 정규전으로 전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확보와 대내외적인 선전을 통해 전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우려를 프랑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프랑스의 전쟁결의를 꺾을 수 있었다.

정치적 여건조성 중심의 혁명전쟁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자들에게서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적용을 거쳐 왔으며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공산주의 혁명전쟁 전략에도 공통된 승리의 공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레닌, 마오쩌둥, 체게바라 등과 같은 혁명 지도자들은 각각 자국에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과 조건에 부합한 형태로 각 혁명전쟁의 단계를 변용하여 적용하였다. 혁명전쟁의 전략은 혁명을 가능케 하는 정치, 사회, 심리적 조건이 존재해야 하며 그러한 조건들이 없는 전략이란 무의미하며 그 조건들을 반영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 전략은 특정 장소와 시점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Shy 1986, 819).

#### IV. 혁명전쟁 전략의 성공요건

혁명전쟁은 일반적 전쟁 상황과 성격 이외에 그에 독특한 상황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 전쟁의 법칙 이외에 그의 독특한 법칙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상황과 성격을 모르고 그의 독특한 법칙들을 모른다면 혁명전쟁을 지도할 수 없으며 혁명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모택동, 1936, 67). 하일브룬(Heilbrunn 1967, 161)도 승리를 위한 고정된 법칙을 식별하여 이론화 하는 전략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혁명전쟁을 위한 ‘법칙(rules)’은 고안할 수 있을지언정 ‘이론(theory)’은 발전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시간과 장소에 따라 혁명전략은 달리 적용되어야지 기계적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오쩌둥도 혁명전쟁이 성공하려면 사회 발전단계와 지리적 특성 등 제반 환경조건과 부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된 지적은 혁명전쟁의 변화하지 않는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이 변수들을 조합한다면 혁명전쟁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다는 것이다(Ney 1962, 28-38).

혁명전쟁의 성공을 구성하는 핵심변수는 혁명전쟁의 전략적 중심이 되는 대중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노력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Paret 1967, 38). 이것은 크게 대중의 정치적 동원과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정치전(political warfare)과 상대방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전(military warfare)으로 구성된다(O'Neil 2005, 32). 정치전과 군사전은 혁명전쟁의 전 단계에 걸쳐 전략 환경의 대내외적 조건에 부합된 형태로 발전할 때 혁명전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만약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무시하거나 다른 요소보다 편향된 비중을 치우친다면 혁명전쟁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 1. 정치적 측면의 결정요인 : 동기와 조직

혁명전쟁의 성공은 장기적인 투쟁을 감수할 태세가 되어있는 대중을 광범위하게 동원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Paschall 1996, 192-194). 정치전은 전쟁 전체단계의 핵심국면이며 잘 조직화된 대중조직이 바로 정치적 역량의 근간을 이룬다. 대중의 정치적 동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경우에 따라서 강력한 군사적 역량도 패배시킬 수 있다(모택동 1938, 218; Hammes 2008, 29).<sup>9)</sup> 따라서 가급적이면 무장투쟁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선전선동, 시위, 지도세력의 구축, 정부기관에 대한 침투공작, 대중(노동자, 농민)의 지지 획득, 대중에 대한 지원활동 등을 통해 정부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정치적 준비의 완전성을 추구함으로써 혁명전쟁 전단계의 승리를 보장해야 한다(O' Neil 1980). 대중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대중을 유인하여 정부로부터 분리시킬 만큼의 강력한 대중적 동기(cause),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대중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직(organization)이 존재해야 한다(Thompson 1970, 9-10).

첫째, 대중의 광범위한 정치적 동원을 위해서 각 혁명단계의 요구에 적합한 대중적인 동기가 제시되어야 한다. 모든 혁명전쟁은 명분 또는 동기가 되는 주민의 불만으로부터 시작되며 혁명의 '정당한 동기(just cause)'는 전쟁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는 원동력이 된다. 혁명세력은 '동기'라는 이데올로기적인 힘을 이용하여 전쟁을 정당화하고 대중을 정치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정부를 수세적인 상황으로 압박할 수 있다(Heuser 2010, 13).

혁명동기가 충격력을 가지려면 대중성과 단계별 적합성을 구비해야 한

9) 마오쩌둥은 “민족혁명전쟁은 일반적이고도 철저한 정치적 동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국의 인민을 동원하는 것은 적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무기 등의 결함을 메울 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전쟁의 모든 곤란을 극복하는 전제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은 인민을 동원하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 승리하려 하면서도 정치적 동원을 경시하는 것은 수레채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수레를 북쪽으로 몰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대중의 정치적 동원과 조직화를 강조하였다.

다. 우선 혁명세력이 추구하는 이념과 이상과 같은 혁명동기는 대중을 정부로부터 분리시켜 소극적 지지에서부터 적극적 지지로 끌어올릴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Paget 1967, 23). 혁명동기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모순’과 대중의 ‘불만’에서 찾을 수 있다(모택동 1936, 67). 모든 사회와 국가에는 내부 불만과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혁명의 동기는 무수히 존재하며 혁명집단이 제시하는 동기가 사회 내부의 모순에 부합된다면 혁명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다. 단 설정된 동기는 대중의 열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Griffith 1961, 43).

대중의 열망과 적합한 동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혁명집단은 각 단계의 정치군사적 발전상황에 적합한 동기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혁명전쟁이 정치적 조직화단계를 넘어서 무장투쟁으로 돌입하여 ‘전쟁 자체’가 사회의 주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면 혁명의 동기는 이념적 차원보다는 대중의 원초적인 욕구, 즉 ‘생존’의 문제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일반 대중이 최초에 혁명조직 건설 및 유격전에 가담하는 이유는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와 같은 정치적 ‘이상’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sup>10)</sup> 혁명전쟁의 단계가 발전되어 유격대와 정부군간의 폭력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단계에서는 최초단계에서 작동되었던 이념적 수준의 ‘동기’의 충격력은 약화된다. 왜냐하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인 ‘홉스적 자연 상태’가 도래할 경우 개개 인간들은 이상을 추구하기보다 공포심 때문에 필사적으로 ‘보호물’을 찾으려 노력하게 된다(마키아벨리·홉스 1989, 232).<sup>11)</sup> 유격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배신자이며 적이

10) 클라우제비츠는 “적대적인 감정”과 “적대 의도”를 구분하였는데, 그는 적대감정을 비성적인 것으로, 적대의도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면서 전쟁이 “정부의 단순한 이성적 행동”에 연원한다는 점을 의심하였다. 클라우제비츠의 해석을 떠나 적대의도로부터 예견 가능한 이해관계의 추구하고 멀리 동떨어진 이상의 실 현간에는 엄연한 구분이 가능하다. 빨치산전쟁은 상당한 수준의 “적대감정”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자체의 동력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과 같은 ‘이상’에 초점을 맞춘 데에서 비롯된다.

11) “인간이 보편적이고, 그들 모두를 제어하는 권력 없이 사는 시대의 인간들은 전쟁이라 불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안전의 담보는 사라지고 지속적인 전투태세만이 요구된다. 이렇게 될 경우 유격대와 정부군의 중간에 위치한 대중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즉 대부분의 국민들은 유격전의 개시와 함께 개개인의 생존에 보다 관심을 가지므로, 주민들은 승리의 가능성이 큰 한 일방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Thompson 1970, 6-9). 따라서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들이 유격전에 가담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홉스적 자연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생존의 욕구에서 비롯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명의 동기설정은 상대의 대응전략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혁명전쟁의 초기단계에서 대중의 열망을 유인했던 강력한 동기도 혁명세력의 확장과 상대방의 대응이 강력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패망 이후 필리핀이 독립했을 때 토지개혁이라는 동기는 대중의 지지획득에 강력한 충격력을 발휘하였으나 정부가 혁명세력들의 지지 계층들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함에 따라 혁명세력은 더 이상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다(Galula 2006, 13). 이처럼 혁명전쟁에서 대중의 심장을 관통하는 사상과 불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이상주의적인 이념적 동기이외에도 하위 수준의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간파해야 하며 ‘시기’를 놓쳐버린 동기를 기계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Paret 1962, 21).

혁명적 동기를 대중에게 전파하고 정부의 무능을 폭로하기 위한 효율적

리는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의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원인은 전투 행위들에만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투쟁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알려진 시간대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날씨의 속성에도 속하는 것처럼 전쟁의 속성에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나쁜 날씨의 원인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소낙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치는 그러한 경향에 존재하는 것처럼 전쟁의 근본속성도 실질적인 전투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의 명확한 지향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 수단은 선전선동이다. 전복자들은 선전을 통해 기만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과장을 함으로써 정부와 대중의 관계를 이탈시킬 수 있다. 전복집단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을 대중에게 반드시 증명해야 할 의무가 없는 반면 정부는 현재의 정책실행에 대한 책임 과거의 과오로부터의 속박 등으로 인해 선전선동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공적(公敵)’으로 규정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선택적 테러를 통해 대중의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유발하여 대중의 불만을 해소해 주는 방법도 있다. 또한 테러리즘으로 전환하여 혁명세력의 강함을 과시하고 정부의 취약성을 선전함으로써 주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폭동, 파업, 데모, 유격전 등을 감행하여 정부의 무차별적인 주민통제, 과잉진압 및 보복행위를 자극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증대시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혁명집단은 정부군으로 위장하여 주민들에게 의도적인 피해를 입히고 이를 정부의 ‘인민학살’이라고 뒤집어씌우고 허위선전을 유포하기도 하며 정부군의 진압 작전간 과잉행동을 부각시켜 주민들의 공분을 형성하게끔 조장할 수도 있다.

둘째, 혁명전쟁에 있어 상대방의 물리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혁명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대중을 조직화할 수 있는 통일된 효과적인 혁명조직이다. 대중적인 동기를 광범위하게 확산하기 위해서는 선전, 태업, 테러 등과 같은 비폭력 및 폭력투쟁을 통제할 수 있는 상부조직은 물론이며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 세포조직으로 구성된 사회 내부의 대중적인 정당이 필요하다(Andreopoulos 1994, 195).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조직과 대중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과 대중을 일치화시켜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혁명조직은 혁명전쟁의 제2단계인 유격전을 수행 시에 합법적·비합법 투쟁을 통해 대중을 정치군사적으로 동원하여 유격대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Thompson 1970, 9-10).

장기적인 혁명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명조직은 고도의 이념적, 정치적인 응집력(cohesion)을 가져야 한다. 조직의 응집력은 공동의 제도, 태도 및 체계적인 조직의 구축과 같은 혁명세력의 전 역량과 노력을 통합시키는 핵심요소이다. 특히 이념은 혁명역량의 결집을 위한 구심력이 된다. 그러나 만약 혁명전쟁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지닌 경쟁적 파벌로 이루어져 정파적 성향을 가질 경우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혁명전쟁 수행에 있어 “양날을 가진 칼”이 될 수 있다(O'Neil 1980).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데올로기는 혁명 조직의 응집력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며, 파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조직의 형태도 응집력 구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혁명 조직 내에 경쟁적 지휘구조가 형성되었을 경우 혁명집단은 특정 작전과 국면에 대한 통일된 지휘체계의 구축, 여러 파벌간의 분업 방식의 혁명사업, 또는 전 국면에 대한 단일적 지도체계의 구축과 같은 방식을 통해 혁명역량과 온갖 노력의 통합을 시도하게 된다. 통일된 지휘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각 파벌의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전반적인 이해관계”에 종속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혁명전쟁은 혁명의 동기(cause)와 조직(organization)이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혁명전쟁의 목표달성 여부가 결정된다. 혁명전쟁의 동기와 조직이 모두 양호한 조건하에서는 초기단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조직은 양호하나 동기가 취약할 경우에는 장기전을 통해서만이 혁명전쟁을 승리로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혁명전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목적을 달성시키기에 충분히 매혹적이 못하기 때문에 3단계의 군사적 결전을 통해서 혁명전쟁의 최종적인 결실을 보게 된다.

## 2. 군사적 측면의 결정요인 : 타이밍과 결정성

정치적 측면의 준비와 더불어 혁명전쟁에서 핵심적인 국면은 유격전과 정규전 형태로 대별되는 무력투쟁의 타이밍과 결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혁



명전쟁의 성공을 담보하는 일관되고 고정된 전략이란 사실상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정치적 조건이 성숙되었다면 1단계에서 3단계로 직접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며, 정부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경우 상황에 따라 3단계에서 2단계 혹은 1단계로 회귀할 수 있다. 이러한 각 단계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거나 무조건 후퇴한다면 혁명전쟁의 전반적인 실패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자를 ‘좌경적 모험주의’ 그리고 후자를 ‘우경적 패배주의’의 오류라고 부르는데(모택동 1936, 66-138), 지도자는 단계별 전환에 대해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가져야 하며 해당 국면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을 감안하여 진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O’ Neil 2005, 53).

첫째, 무력투쟁의 개시 타이밍(timing)은 1단계(정치적 동원)에서 2단계(유격전)로 전환되는 시점에 관한 문제로 이것은 정치적 여건의 성숙도와 관계된다. 상대적으로 강한 적을 상대하는 경우 군사적 투쟁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를 위한 유리한 정치적 여건과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격전은 민중의 투쟁이며, 이들의 강력한 뿌리는 대중의 지반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므로 만약 지역 주민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유격대는 주민을 약탈하는 강도단처럼 단기간에 생명력을 잃게 된다(Che Guevara 1962, 336-337). 따라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투쟁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주도권’을 완전히 독점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광범위한 정치적 동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오쩌둥은 초기 단계에서 군사적 투쟁을 위한 정치적 준비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여건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무력 투쟁을 선행한다는 것은 혁명의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Pustay 1965, 44-51).

“...정권수립과 같은 이런 힘겨운 공작을 수행하는 것을 쓸데없는 일처럼 여기면서 비교적 손쉬운 유동적인 유격의 방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며, 전국 각지에서 대중을 쟁취하는 공작이 성공되거나 어느 정도까지 된 다음에 전국

적인 무장봉기를 단행하고 그때에 홍군(紅軍)의 역량을 가하면 그것이 전국적 범위의 대혁명으로 되리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유동적(流動的) 유격정책으로는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의 고조를 촉진시키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으며…”<sup>12)</sup>

반면에 체계적인 대중의 정치적 조직화를 통해 정치적 여건을 철저히 준비한 이후에 유격전을 개시하는 원칙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정치적 준비를 강조하는 마오쩌둥식 유격전사상과 반대로 폭력투쟁 자체가 혁명의 정치적 과정을 정당화시키고 대변해 준다는 체계바라의 ‘거점주의(focoism)’가 바로 그것이다. 체계바라(Che Guevara 1962, 337-340)에 의하면 혁명을 영도하는 공산당 조직은 고유한 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유격대 자체가 대중동원이라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미성숙한 정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계바라(Che Guevara 1962, 340)는 쿠바혁명의 경험으로부터 혁명전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주민의 지지와 힘이 혁명전쟁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혁명의 전제조건이 충족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며 대중의 불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무기를 들고 쫓기하는 단순한 사실 자체가 혁명을 위한 적합한 조건을 창출 해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체계바라는 혁명적 자각과 정치적 동원이 무력투쟁보다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마오쩌둥의 논리를 ‘패배주의’라고 비판하고, 혁명조직의 출현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유격거점(foco)”로부터 조직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체계바라식 거점주의의 핵심은 혁명전쟁 수행을 위해 정치와 군사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유격대라는 무력투쟁이 이미 ‘주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유기적인 정군 배합투쟁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보았다는데 있다. 즉 체계바라는 대중의 힘이 정부의 정

12) 모택동, “한 점의 불씨가 광야를 태울 수 있다. 1930년 1월 5일,” 김정계 역, 『모택동의 군사전략』, pp. 55-56.

규군과 맞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으며, 혁명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민중봉기 그 자체가 바로 혁명의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체계바라의 주장은 유격대가 대중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획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승리를 달성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혁명세력과 반 혁명세력의 모체가 되는 ‘대중’을 유격대가 선취함으로써 반혁명 세력의 기반을 흔드는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주지할 점은 체계바라의 모험주의적 유격 전략은 쿠바혁명이라는 특수한 상황, 즉 혁명집단이 취약한 정부군을 상대로 하는 조건에서 적실성을 발휘한 전략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혁명전쟁이 수행되는 조건은 피아역량에 있어서 혁명집단이 힘의 열세 또는 적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무장투쟁으로 조기에 전환한다는 것은 혁명전쟁의 성공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둘째, 군사적 측면에서 핵심적인 변수는 혁명전쟁 전체국면의 승패를 가르는 정규전 개시를 위한 군사적 결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유격전을 전개하는 2단계에서 3단계인 전면적 공세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의 선택에 대한 문제이다. 혁명전쟁의 3단계는 혁명세력이 정부군의 주력을 정규전을 이용하여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기 위해 무장투쟁의 규모를 확대하는 기간으로써 정치, 군사, 경제, 사회적 입지를 보강하고 상대방을 약화시키며 대외적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교섭활동을 하는 단계이다(O'Neil 2005, 53). 즉 정규전으로의 전환시점은 혁명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국면이다. 혁명전쟁 이론상 혁명의 최후승리를 결정지었던 핵심 요소는 유격전이 아니라 현대화된 군사장비로 무장한 정규군이였다. 마오쩌둥도 “전체전쟁에서 정규전이 주요한 것이고 유격전은 보조적인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혁명전쟁의 결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정규군임을 명확히 하였다(모택동 1938; Che Guevara 1962).

정규군으로 전환하여 결정적인 전투를 수행하고자 결심할 때는 그 국면이 결정성을 가져야 한다. 혁명전쟁 전체 국면의 결정성은 적의 공격력이

정점(culminating point of offensive)에 도달하거나 아군의 공격력이 만조기에 도달하여 피아(彼我) 역량의 전략적 균형이 달성되어 힘의 변곡점에 도달했을 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는 대중의 정치적 동원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여건의 성숙도와 외세의 지원을 받는 군사력 등 주객관적인 피아균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아역량 관계를 평가하여 혁명의 결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수많은 오지(misperception)와 오산(miscalculation)이 초래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오쩌둥(1936)도 이 시점을 “전쟁전반에서나 전역전반에서 가장 격렬하고 가장 복잡다단하며 또 가장 곤란하고 가장 고난에 찬 투쟁이며 지휘면 에서도 가장 어려운 때이다”라고 하였으며, 정규전으로의 전환 시점을 너무 조기에 해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객관적인 피아균형을 계산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변수는 피아 군사력이외에 외부세력의 개입 문제이다. 외세의 개입에 대한 군사적 균형점은 전복자들을 지원하는 외부세력과 정부군을 지원하는 외부세력의 개입범위와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계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세가 개입된 혁명전쟁에서는 정부군을 지원하는 후원국의 지원역량과 의도까지도 피아역량 판단에 포함해야 하므로 국제관계의 역학관계와 세력의 변화를 정확히 통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규전을 수행하기 전에 대중의 동원을 통한 정치적 여건조성이 더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국제정세 변화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고 불의의 상황 변화를 상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조건이 바로 체계적인 정치전을 통해 조성되기 때문이다.

피아간 힘의 관계를 오관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결전을 추구하는 군사적 모험주의는 혁명전쟁 전체국면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오쩌둥(1938)은 “속승론자(速勝論者)들은 전쟁이 힘의 경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전쌍방의 역량대비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전략적 결전을 진행하려 하며, …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반드시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정말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이나 하고 흡



죽해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면서 모험주의적 결전주의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였다. 조스(Joes 1996, 72)도 1944년에 시작된 그리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전쟁이 실패했던 원인은 미국의 대대적인 그리스 정부 지원, 전략적 거점인 유고슬라비아의 지원 상실, 주민들의 지지(농촌지대) 획득 실패 외에도 공산주의자들의 자체적인 과오로써 혁명군들이 너무 조기에 전면전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혁명전쟁 이론은 유격전의 개시 타이밍과 정규전의 결정성을 포함하여 군사력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전의 성숙도와 객관적인 피아 군사력 수준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혁명전쟁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체게바라 식의 ‘유격대 거점주의’와 같이 혁명의 전제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는 소극성에서 벗어나 무력투쟁 자체가 대중의 쉼기와 봉기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모험주의적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상대하는 적의 역량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혁명전쟁 수행에서 핵심적인 논쟁점은 정치전과 군사전의 배합형식에 있어 정치전의 요구조건 충족 이후에 군사전을 전개하는가, 아니면 군사전의 전개를 통해 정치전의 효과를 유도해내느냐 하는 결심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정치기반 혁명전쟁(protracted popular war)’, 후자는 ‘군사기반 혁명전쟁(military focus strategy)’으로 정의된다(O’ Neil 2005, 49-62). 군사기반 전략의 경우 정치기반 전략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군사적 도발’ 자체가 대중동원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모험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정치기반 전략의 성공적인 적용은 중국혁명, 베트남혁명, 알제리 민족 해방전쟁 등 광범위한 사례에서 입증되었으나 군사기반 혁명 전략은 쿠바혁명의 단일사례에서 적용되었을 뿐이다.

## V. 결론: 현대적 함의를 중심으로

혁명전쟁 관점의 해석이 기존의 국제전쟁 관점의 논리구조와 명확히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전략 수단’의 범위, 즉 전략의 주체가 사용하는 수단이 단지 물리적 군사력에 한정되지 않고 선동, 폭로, 폭동, 테러, 유격전 등을 포함하는 정치전의 국면을 포괄하는 데에 있다. 즉 혁명전쟁은 ‘영구적 평화(perpetual peace)’라는 절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이라는 중심을 공략하는 정치전과 상대 정부 및 군대의 무장해제라는 군사전의 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무시하거나 요소간의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혁명전쟁은 당초에 기대하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현대 북한의 대남전략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바로 혁명전쟁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혁명전쟁은 국제전과 달리 고도의 정군배합(政軍配合)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수행 방식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전쟁은 북한이 정권을 수립한 이래로 남한정부의 전복을 위해 일관되게 추구해온 기본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사회 내부로 침투하여 국민들의 불만요소를 파악하고 대중조작, 대중선동, 대중동원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군사적 결전의 여건을 성숙시키고자 하였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비록 ‘대중의 마음’을 흡수하라는 혁명전쟁의 이론적 명제를 충실히 따르는 체계적인 정치전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본 전략체계는 남한사회의 정치적 ‘혼란 조성’과 사회 내부로의 정치적 침투를 통한 정치적 전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혁명전쟁 전략의 형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6·25전쟁 이후부터 ‘정치기반 혁명전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치전과 군사전의 전략적·전술적 수준의 배합방침에 입각한 대남전략을 추구하였다. 단적으로 김일성(1955)은 6·25전쟁 수행시 북한이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 조건”에 부합한 “혁명문제”로서가 아니라 “남의 나

라 당들의 투쟁경험을 통째로 삼켰다”고 비판하였고, 전쟁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유격대의 활동과 전 인민적 항쟁을 결합하여 …전체 인민을 하나의 전투대오로 꾸려 거족적인 투쟁력량을 마련”하여 남한정권을 전복시키는 정군배합에 있음을 강조하였다(중앙정보부 1974). 김일성(1964)은 “아무리 북조선의 혁명력량이 강화되고 국제 혁명력량이 강화 되어도 남조선 혁명력량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남조선에서 혁명을 할 수 없다”면서 남한 내 정치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술적 차원에서도 김일성은 유격전과 정규전의 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악과 하천이 많은 남한의 지형조건에서 “대규모적인 정규전과 영활한 유격전을 배합”하고 “전선 작전과 적 후 투쟁을 배합”하여 전후방 도처에서 남한을 공격하는 전략을 강조하였다(중앙정보부 1974). 이러한 정군배합전 형식의 대남전략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특히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2012년 이후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사회 내부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 될수록 북한의 정치전과 배합한 군사적 도발의 빈도를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전쟁의 전략 개념은 꼭 북한 집단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유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혁명전쟁 전략은 향후 한국의 대북 군사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책적인 함의를 준다. 북한의 시나리오대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래 분쟁의 양상이 정치전과 혼재된 정군배합(政軍配合)의 형태일 경우, 여기서 한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 중심적 접근을 통해 첨단 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 이외에도 장기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북한 지역 주민의 ‘마음’을 획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직면하여 최악의 경우 중국의 개입을 동반한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북한 지역의 안정화와 더불어 이를 ‘통일’의 기회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혁명전쟁의 전략 개념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군복 입은 전투원간의 충돌, 즉 국군과 인민군간의 무력충돌에 국한되기 보다는 북한 내

의 반란군, 민병대, 당 전위조직, 게릴라, 폭동, 테러리즘등과 같은 다양하고 비대칭적인 유형의 투쟁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즉 주민과 전투원이 식별되지 않는 가운데 분쟁이 전개될 수도 있으며 주민들이 전투원들을 지원하면서 보호하거나 군사작전에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위기의 수위와 범위가 한국군의 관리능력을 초과하게 될시 외세(중국, 러시아)가 개입되어 분쟁의 양상이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급변사태시 ‘불안정’의 수위를 악화시키고 중국의 개입에 대한 명분을 박탈하면서 한국주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지지를 쟁취하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전략의 중심을 주민의 지지 획득에 두어야만 군사전의 성공과 함께 신속한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중국의 북한개입의 구실을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치전을 동반한 북한 대남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혁명전쟁 전략의 역 발상에 기초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은 혁명전쟁의 본질과 중심을 간파하여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역으로 혁명 전쟁적 발상에 기반하여 북한 체제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는 등의 전략적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북한의 공세전략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며 북한체제의 존립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전략적 차원의 “공세적 방어”를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투 고 일 : 2012년01월02일]

[심사완료일 : 2012년01월26일]

[게재확정일 : 2012년01월26일]

## 참고문헌

- 김일성. 1955.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김일성. 1967. 『김일성저작선집 1』. pp. 497-5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64. “혁명적 문화예술을 창작할 데 대하여: 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 \_\_\_\_\_. 1968. 『김일성저작선집 4』. pp. 141-15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모택동. 1938. “지구전(持久戰)에 관하여 논함.” 김정계 역. 1994. 『모택동의 군사전략』. pp. 174-255. 대구: 중문.
- \_\_\_\_\_. 1936. “중국 혁명전쟁(革命戰爭)의 전략문제, 1936년 12월.” pp. 66-140. 김정계 역 (1994).
- 마키아벨리 · 홉스 저. 한승조 역. 1989. 『군주론 · 리바이어던』. 서울: 삼성출판사.
- 박창희. 2011. 『현대중국 전략의 기원』. 서울: 플래닛미디어.
- 중앙정보부. 1974. 『北傀軍事戰略資料集』. 서울: 중정.
- Andreopoulos, George J. 1994. “The Age of National Liberation Movemets,” Michael Howard, *The Laws of War: Constraints on Warfare in the Western World*, pp. 191-213. New York: Yale University.
- Arreguin-Toft, Ivan. 2001.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26(1): 93-128.
- Baylis, John. 1975. *Contemporary Strategy: Theories and Politics*, New York: Homes and Meier.
- Bell, J. Bowyer. 1971. *The Myth of the Guerrilla: Revolutionary Theory and Malpractice*, New York,
- Beyerchen, Alan D. 2007. “Clausewitz and the Non-Linear Nature of War: Systems of organized Complexity.” Hew Strachan, eds. *Clausewitz in the Twenty-First Century*, pp. 45-5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nd, Brian. 1996. *The Pursuit of Victory: From Napoleon to Saddam Husse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e Guevara, Ernesto. 1962. "La Guerra de Guerrillas." *Franklin Mark Osanka, Modern Guerrilla Warfare: Fighting Communist Guerrilla Movements, 1941-1961*. pp. 336-375.

Glencoe: The Free Press.

Clausewitz, Carl von, herausgegeben von Hans Rothfels, 1922. *Politische Schriften und Briefe*.

Muenchen: Drei Masken Verlag.

\_\_\_\_\_,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1984.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llins, John M. 1973. *Grand Strategy: Principles and Practices*. Annapolis: Naval Institute.

\_\_\_\_\_. 2002. *Military Strategy: Principles, Practice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Washington

D. C.: Brassey's Inc.

Echevarria II, Antulio J. 2005. *Fouth Generation War and Other Myths*, November.

Galula, David. 2006. *Counterinsurgency Warfare: Theory and Practice*. Westport: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Gat, Azar. 2001. *A History of Military Thou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ray, Colin S. 1999. *Modern Strate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Griffith, Samuel B.. 1961. *On Guerilla Warfare*. New York: Praeger.

Hammes, Thomas X. 2004. *The Sling and The Stone: On War in the 21st Century*. Minesota:

Zenith Press.

\_\_\_\_\_. 2008. "War evolves into the fourth generation," Terry Gerriff, Aaron Karp and

Regina Karp, eds. *Global Insurgency and the Future of Armed Conflict: Debating*

*fourth-generation warfare*. pp. 21-4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Heilbrunn, Otto. 1967. *Partisan Warfare*. New York and Washington: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Herberg-Rothe, Andreas. 2006. *Clausewitz und Napoleon: Jena, Moskau, Waterloo*. Hamburg:

Internationales Clausewitz-Zentrum.

\_\_\_\_\_. 2007. *Clausewitz's Puzzle: The political Theory of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euser, Beatrice. 2002. *Reading Clausewitz*, London: Pimlico.

\_\_\_\_\_. 2007. "Clausewitz' s Ideas of Strategy and Victory." Hew Strachan and Andreas Herberg-Rothe, eds. *Clausewitz in the Twenty-first Century*. pp. 138-16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10. *The Strategy: Thoughts on War and society from Machiavelli to Clausewitz*. California: Praeger.

Howard, Michael. 1980. "The Forgotten Dimension of Strategy." George Holt and Walter R. Milliken, eds. *Strategy: A Reader*. pp. 2-12. Washington D. 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Huntington, Samuel P. 1962. "Guerrilla Warfare: Theory and Policy." Franklin Mark Osanka, *Modern Guerrilla Warfare: Fighting Communist Guerrilla Movements 1941-1961*. pp. xv-xxii. Glencoe: The Free Press.

Joes, Anthony James. 1996. *Guerrilla Warfare: A Historical, Biographical and Bibliographical Sourcebook*.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Kondylis, Panajotis. 1988. *Theorie des Kriegs: Clausewitz-Marx-Engels-Lenin*, Klett-Cott.

Lider, Julian. 1983. *Military Theory*.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Lind, William S. 1989. "The Changing Face of War: into the Fourth Generation," *Marine Corps Gazette* 1(1): 22-26.

Mao Tse-Tung. 1961. *On Guerrilla Warfare*, trans. Samuel B. Griffith, New York.

Muenkler, Herfried. 2003. *Ueber den Krieg: Stationen der Kriegsgeschichte im Spiegel ihrer theoretischen Reflexion*, Verbrueck Wissenschaft.

Ney, Colonel Virgil. 1962. "Guerrilla Warfare and Modern Strategy." Franklin Mark Osanka, eds. *Modern Guerrilla Warfare: Fighting Communist Guerrilla Movements 1941-1961*. pp. 25-38. Glencoe: The Free Press.

O' Neil, Bard E. 1980. *Insurgency in the Modern World*, Boulder and Colorado: Westview Press.

\_\_\_\_\_. 2005. *Insurgency and Terrorism: From Revolution to Apocalypse*. Washington D.

- C.: Potomac Books Inc.
- Osgood, Robert E. 1957. *Limited Wa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Paget, Julian. 1967. *Counterinsurgency and Operations: Techniques of Guerrilla Warfare*. New York: Walker and Company.
- Paret, Peter. 1959. "The French Army and la Guerre revolutionanaire." *Royal United Service Institution Journal* 1(1): 25-32.
- \_\_\_\_\_. 1962. *Princeton Studies in World Politics, Nr. 1: Guerrillas in the 1960'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
- Paschall, Rod. 1996. "Guerrilla Warfare." Robert Cowley and Geoffrey Parker, eds. *The Osprey Companion to Military History*. pp. 185-215. London: Osprey Military.
- Pustay, John S. 1965. *Counterinsurgency Warfare*. New York: The Free Press.
- Sarkesian, Sam C. 1975. *Revolutionary Guerrilla Warfare*. Chicago/ Illinois: Precedent Publishing Inc.
- Shy, John and Collier, Thomas W. 1986. "Revolutionary War." Peter Paret, eds. *Makers of Modern Strategy: From Machiavelli to the Nuclear Age*. pp. 815-86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ompson, Robert. 1966. *Defeating Communist Insurgency: The Lessons of Malaya and Vietnam*.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 \_\_\_\_\_. 1970. *Revolutionary War in World Strategy 1945-1969*. New York.
- The U. S. Department of Defense. 2007. *Irregular Warfare Joint Operating Concept*.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ABSTRACT****A Study on the Revolutionary War Theory and Its Implication****KIM Tae Hyun**

Ph. D.

Military Science and Art, Korea Joint Military University

The revolutionary war is a concept which was developed by Mao Zhedong during the chinese civile war and especially used by the people's liberation war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nature of revolutionary war does still exist under the concept of "The Fourth Generation Warfare" and has an implication on the recent war strategy in the US' s conduct of anti-terror war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the North Korean' s military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The revolutionary war concept has a special meaning for us in a sense that this form of war has been a consistant strategy of North Korea since the birth of regime, consisting of political war and military war, and a critical threat for the South Korea. Moreover, in a situation that the military and political instability are increasing in the face of the power transition in both side of Korea in 2012, it is necessary to make an theoretical analysis on the revolutionary war in order to take our course of action against the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 This study will provide a theoretical base to deepen a understanding about the concept of revolutionary war and thus a systemic insight to grasp the entity of North Korean strategy.

**Key Words** revolutionary war, center of gravity, political warfare, military warfare, fourth generation war, hearts and minds, existential warfare